

미국사를 바꾼 백악관의 충격적이고 은밀한 사생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래리 플린트 지음

육감적인 스물일곱 서독 여성 엘렌 로메취. 흑갈색 머리칼이 매력적이었던 그녀가 백악관을 다녀간 후 미국 대통령은 그녀가 속한 폴컬 클럽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의 섹스였소"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62년 영국의 헤럴드 맥밀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심각한 두통에 시달린다"고 털어놓는다. 또 짬을 내 백악관 수영장에서 장녀, 할리우드 영화배우, 19세 인턴 혹은 두 여비서와 섹스 파티를 벌였다. 그는 누구일까? 수많은 젊은이가 이유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게 한 미국의 성인잡지 '허슬러'의 설립자 래리 플린트의 신간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에 그 답이 있다. 정답은 케네디다.

케네디의 섹스 일화는 너무 많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베개 밑에서 여자의 팬티 몇 장을 찾아내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겠어?"라고 묻자 케네디는 "내 것이 아닌데"라고 대답했다.

케네디는 결혼 첫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정자 개체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원인은 정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성병 때문이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 케네디의 아내 재키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이 책에는 재키가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와 밀회를 나누는 과정도 소개한다.

섹스는 비단,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때 FBI는 워싱턴의 창녀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FBI의 보고서를 보면 "모 의원이 창녀에게 이상한 체위의 성행위를 요구한 뒤 일회용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쓰여 있다. FBI는 수천 명의 섹스 스캔들을 수사했다.

저자는 "독립전쟁부터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그리고 현재까지 섹스는 미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미국사는 정말이지 가장 위대하고도 이상한 이야기다"고 강조한다.

남북전쟁에 대한 주장도 흥미롭다. 책

은 "페기 스캔들"이 없었다면 잭슨은 칼훈이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분리독립운동의 선구자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또 뷰캐넌 대통령이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 킵과 동성애를 하지 않았다면 남부의 분리독립운동이 1860년에 그처럼 강력하게 전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밖에 책은 르윈스키 스캔들과 9·11테러의 관계도 소개한다. 1998년 12월 의회의 탄핵을 받은 말에 클린턴 대통령은 '빈라덴이 미국 항공기를 납치 및 다른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비밀보고서를 받았다. 미국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예나저를 소진하고 있을 때 빈 라덴은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다. <메디치·1만8500원>/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962년 미국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시민들과 망중환을 즐기고 있다. 케네디는 "매일 그 짓을 하지 않으면 편두통으로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메디치 제공>

늦잠에서 깨어난 일요일 오후 여유 부리며 한편씩 읽어보자

일요일의 인문학

장석주 지음



'나는 왜 늘 바빠까', '연애, 그 생명의 충동', '지금 멈추어 읽는 책이 남는 인생의 길이 된다', '나

이 들수록 철학 책을 읽고 시집을 가까이 하라', '니체는 철학의 준봉이다' 등 소 제목들만 봐도 읽고 싶은 글들이 많다.

저자는 서문에서 "파자마 차린 이라도 괜찮고, 눈가에 눈곱이 조금 달라붙어 있어도 괜찮다"며 "늦잠에서 깨어난 일요일 오후, 햇빛 환한 마당에 나무 의자를 내놓고 여유를 누리며 읽어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평론으로 등단한 저자는 '일상의 인문학', '철학자의 사물들', '이성과 모던뽀이들', '느림과 비움의 미학' 등을 펴냈으며 영랑시문학상, 질마재 문학상 등을 받았다.

<호미·1만5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먼 인 골드=영화 '우먼 인 골드'의 원작인 이 책은 영화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역사의 진실과 감동을 전한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활동하던 당시의 예술적 발자취와 여전히 베일에 싸인 그와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와의 관계, 나치 독일이 점령한 오스트리아에서 자행된 유대인 박해와 그림의 상속자인 마리아 알트만이 겪은 가슴 아픈 가족사, 그녀가 해외로 망명해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결국 유산을 되찾아 명예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영림카디널·1만7000원>

▲소중한 경험=소설가 김경영의 여섯 번째 심리 에세이. 저자는 후배 여성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진행해보면서 자기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시간을 내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을 읽어주면서 통찰과 지혜를 주고받았다. 그 특별한 시간 속에서



후배 여성들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책은 그 소중한 경험에서 도출된 노하우를 정리해 수록하고 있다.

<사람풍경·1만5000원>

▲강수돌 교수의 더불어 교육혁명=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온 강수돌 교수의 신작.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두렵고 내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뒤처지게 될까 걱정되어, 더불어 모색해야 할 변화에 다가서지 못하는 학부모와 교사들, 또 어른들의 주저함으로 인해 끝모를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안에서 고통 받는 많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나부터, 지금부터!' '우리부터, 여기부터!'

<삼인·1만6000원>

▲나의 뇌는 특별하다=자폐인 톰프 랜딘은 MRI가 막 개발되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수십 년 동안 자기 뇌를 스캔해왔다. 그 결과 자폐증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면 그 부분이 자라고 변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자폐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양철북·1만4000원>

▲정치왕후=정희왕후는 세조의 부인으로 손자 성종을 도와 조선 최초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한 여성 정치인이다. 수렴청정이 어린 임금을 대신해 정사를 맡은 것인 만큼 적어도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넘어서는 최고통치자가 된다. 책은 여성최초로 조선을 통치한 정희왕후에 대해 다룬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그 때와 다른 듯 닮은 듯한 오늘, 정희왕후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여본다. <말글빛남·1만2500원>

▲조용현의 휴휴명당=동양학자 조용현이 30여 년간 온 감상을 누리며 답사한 명당 22곳을 소개한다. 다산 정약옹이 유배의 울분을 달래 강진 백련사, 백범 김구가 승려로 머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공주 마곡사, 모두가 평등한 세상' 동학의 꿈을 발화시킨 고창 도솔암 마애불... 명당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다. 명당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106컷의 사진도 수록되어 있다. <불광출판사·1만8000원>

어린이 책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드는 한국사 유물 열아홉=신석기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 역사를 두루 살피고 뽑아낸 유물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친한히 관찰하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물을 잔잔히 관찰하고, 유물에 얽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책과함께어린이·1만3000원>



▲나의 작은 칼더=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스테일 이야기. 스테일은 칼더의 작품 중 모빌과 달리 움직이지

않는 조형물을 말한다. 칼더의 작품 중에는 스테일이 모빌을 결합시킨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두 꼬마 스테일이 포함되어 있다. 책은 그중 주황색 꼬마 스테일이 들려주는 그들의 실제 이야기다. <독·1만2000원>

▲길이 보인다! 부릅뜨고 표지판=어린이들이 길거리나 건물, 타겟 등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표지판을 재미있는 동화로 녹여 내어 표지판에 대한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 170개 이상의 표지판을 재미있는 동화와 정보, 표지판 키

드로 풍성하게 수록돼 있다.

<주니어북스·1만5000원>

▲구스벌스: 호러랜드의 비밀=어린이의 불안을 공포로 표현한 현대 어린이 호러 걸작 '구스벌스' 시리즈 14권. 인적이 없는 백백한 숲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놀이공원 '호러랜드'에 꿈쩍없이 발이 묶인 리지 가족은 이런 괴상한 곳에서 과연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섬뜩한 공포로 가득 찬 호러랜드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고릴라북스·8500원>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융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 시설 완비
- 에어컨 2대 내부깔끔 (시비약간있음)

보 2천만 월 130만

급매 / 부동산 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인보화관 상점건물 7층상가건물 월수익 960만 매매가 1억5천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씨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씨(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씨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억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업지 상가임대(1층)
(북구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1층 → 상업지역
평수 → 70평
분할가능 35평
(유동인구 많음, 즉시입주)

최고 상권

커피숍, 식당
PC방 적합

보증금, 월세 상담

010-6670-9800
010-7384-7800

신축 원룸 임대
(전대 정문2분, 전대후문2분)

신축원룸
첫입주!

풀옵션

에어컨,세탁기,침대,책상,TV 등
(모든 비품 무료 사용가능)

올 대리석 시공
7월 30일~8월 30일
입주자 한하여
선물 드립니다!

010-7384-7800
010-6670-9800

법정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구분상가)

1.서구 치평동 (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3억4천	2.광산구 쌍암동(토99㎡, 건23㎡)감정가 2억5천~최저가 1억1천
3.동구 금동동19㎡, 건149㎡)감정가 5억1천~최저가 1억2천	4.동구 금동동18㎡, 건134㎡)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4천
5.서구 치평동 4중중3층(토4.2㎡, 건18.6㎡)감정가 2억9천~최저가 1억1천7백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동구 개림동(토59㎡, 건140㎡)감정가 4억2천~최저가 3억
2.북구 오지동(토54㎡, 건43㎡)감정가 1억9천~최저가 1억6백
3.북구 두암동(토42㎡, 건56㎡)감정가 1억5천~최저가 1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1.북구 윤암동 (토66㎡, 건193㎡)감정가 7억2천~최저가 5억
2.광양시중동(토222㎡, 건991㎡)감정가 26억7천~최저가 18억7천
3.광산구 남산동(토258㎡, 건150㎡)감정가 4억8천~최저가 3억5천
4.서구쌍촌동(170㎡, 건97㎡)감정가 4억~최저가 2억8천
5.북구 중흥동 (120㎡, 530㎡)감정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6.동구 수기동 (토130㎡, 건320㎡)감정가 1억7천~최저가 7억5천

모텔/주유소

1.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7㎡, 건680㎡)감정가 27억~최저가 19억
2.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154㎡, 건419㎡)감정가 15억~최저가 10억5천
3.광산구 월계동 (숙박시설)토400㎡, 건604㎡)감정가 34억5천~24억2천
4.북구 중흥동 (숙박시설)토90㎡, 건377㎡)감정가 11억~4억9천

공장

1.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 건614㎡) 감정가 41억 ~최저가 11억9천
--

062-382-5500
010-6832-9700